

삼성전자, 신개념 복합칩 모비MCP 상용화



삼성전자가 휴대폰용 적층칩 (MCP:Multi Chip Package)에 고용량 메모리 카드를 탑재한 복합칩인 moviMCP를 세계 최초로 개발, 주요 휴대폰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금번 복합칩 moviMCP는 4GB의 메모리 카드가 탑재된 제품으로, 여기에 2Gb 낸드플래시와 1Gb 모바일 D램을 적층해 총 35Gb를 구현했다.

4GB moviMCP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휴대폰 사용자가 동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 각종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고용량 4GB 메모리 카드(movi) 부분과 고속 영상 처리 & 통신기능 모바일 CPU를 지원하는 메모리 적층칩 (MCP)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4GB는 일간지 25년치 혹은 MP3 File

1,000곡 혹은 DVD급 영상 4시간 분량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용량 이다.

삼성전자는 적층칩과 메모리 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4GB moviMCP가 휴대폰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품 개발시 유연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복합칩 개발을 통해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고객사는 단일 칩(Chip)으로 구현된 메모리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비용도 대폭 절감하고 보다 슬림한 휴대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LG, 폴란드에 LCD 일관생산체제 구축

LG가 업계 최초로 폴란드에 LCD클러스터를 완공, LCD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LCD모듈 및 LCD TV 시장인 유럽현지 판매확대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LG는 국내에서 핵심부품인 LCD패널과 편광판을 공급하고, 유럽현지에서는 後공정인 LCD모듈 및 LCD TV세트를 조립생산하는 형태로 역할을 분담해 세계최대 LCD TV 수요처인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LG는 5월 30일(현지시간) 폴란드 남서부 브로츠와프(Wroclaw)시 코비에르지체(Kobierzyce)에서 'LG 폴란드 LCD클러스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날 준공식에는 구분무 LG 회장을 비롯해 남용 LG전자 부회장, 권영수 LG필립스LCD 사장, LG전자 김중은 유럽총괄 사장, 강신익 디스플레이사업 본부장 등 LG 최고경영진과 시공사인 GS건설 허명수 사장 등이 참석했다.

폴란드측에서는 엘리비에타 발친스카(Elzbieta Dorota Wilczynska) 경제부차관, 라파우 두드키에비츠(Rafal Dudkiewicz) 브로츠와프 시장, 그리고 이시형 駐폴란드 대사와 현지 지역주민 등 총 50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 목	일자
1	삼성전자, 베이징 올림픽 마케팅 스타트	2007/06/06
2	삼성 모니터, 3분기 연속 "월드 넘버원"	2007/06/06
3	삼성전자, 재스퍼 모리스폰 출시	2007/06/03
4	삼성전자, 신개념 복합칩 모비MCP 상용화	2007/05/30
5	삼성전자, 라트비아서 올해의 기업PR상 수상	2007/05/28
6	삼성전자, Vodafone과 협업체제 구축	2007/05/27
7	삼성전자, 美 IBM과 32나노 로직공정 공동개발	2007/05/23
8	삼성전자, 2년 연속 세계 TV 시장 제패 성큼	2007/05/23
9	삼성전자, 세계 최고 용량 휴대폰용 메모리카드 개발	2007/05/17
10	삼성전자 DDR3 D램, 업계 최다 인텔 인증 획득	2007/05/14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 목	일자
1	LG전자, 인텔 '3시리즈' 플랫폼 PC시장 공략	2007/06/04
2	LG, 업계 최초로 유럽에 LCD 일관생산체제 구축	2007/06/01
3	LG전자 와인폰, '인간공학 디자인상 대상' 수상	2007/05/28
4	LG전자 美 베스트바이 「최고 파트너」로 선정	2007/05/25
5	남용 부회장, 『The People Company』만든다	2007/05/25
6	LG전자 조성진 부사장 동탑 산업 훈장 수상	2007/05/21
7	LG전자, 유럽서 대규모 평판TV 마케팅 전개	2007/05/17
8	LG전자, 5분기 연속 국내 TV 1위	2007/05/17
9	LG전자, XCANVAS 오픈 골프대회 개최	2007/05/17
10	LG전자, '프라다폰' 국내 본격 출시	2007/05/16

대우일렉, 브랜드 런칭... 이달부터 대대적 마케팅



대우일렉은 아르페지오 스타일 신제품을 앞세워 프리미엄 인테리어 가전 “클라쎌” 브랜드를 중남미 시장에 런칭, 중남미 시장 공략에 나섰다.

대우일렉은 지난주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100년 전통 멕시코 최대 백화점 체인 팔라시오 데 이에로 (PALACIO DE HIERRO)에서 클라쎌(Klasse) 런칭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지난 5월 18일 밝혔다.

중남미 가전 유통 관계자 및 현지 기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런칭 이벤트에서 대우일렉은 독특함, 우아함, 최첨단을 모토로 아르페지오 스타일 양문형 냉장고, 통스팀 세탁기, 홈베이킹 전자레인지, 듀얼쿨러 에어컨 등을 선보였다.

특히 멕시코 양대 일간지인 Universal 과 Reforma에서는 기사를 통해 대우일렉 클라쎌 브랜드 런칭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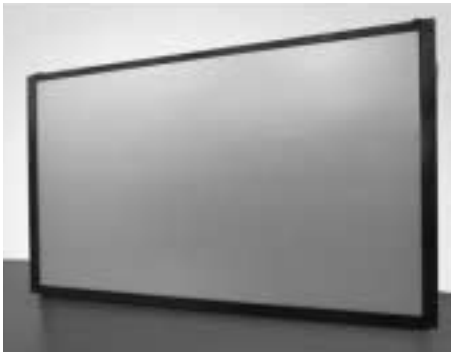
대우일렉이 내수용 브랜드를 해외 시장에 런칭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중남미 가전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기, 가격 내린 LED BLU 출시, 시장 반응 주목

삼성전기는 가격을 최대 40%까지 낮춘 LCD TV용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 유닛(BLU)을 개발하고 6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지난 5월 13일 밝혔다.

이 제품은 빨강, 초록, 청색 등 3가지 종류의 LED 칩을 사용한 기존 BLU와 달리 백색 LED만을 사용, 칩 수와 구동회로 등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색 재현율은 85%로 3색 LED BLU(110%) 보다는 낮지만 일반 백색 LED 또는 냉음극형광램프(CCFL) BLU(70%)보다는 높다.

삼성전기는 이 제품이 색재현율이 낮지만 가격을 크게 낮춘 데다 색대비를 높일 수 있는 로컬디밍, 소비전력 절감, 유해 물질 미사용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기 OS사업부장 안기훈 전무는 “이번 백색 LED BLU의 출시로 가격문제가 대폭 개선돼 TV용 LED BLU의 상용화가 현실로 다가왔으며 LED 광효율 개선, 제조기술력 향상 등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이노텍 광주공장, 튜너 1위 생산기지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하남공단에 위치한 LG이노텍 공장 정문을 지나가면 ‘1등부

품! 약착같이, 될때까지, 끝까지!’란 구호가 공장 곳곳에 걸려있다. 이곳에서는 LG이노텍의 세계 1위 부품인 TV튜너가 설계돼 생산된다. LG이노텍은 지난해 TTE(중국), 샤프 등을 제치고 16%의 점유율로 TV 튜너 부문 1위에 올랐다. 아날로그 튜너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1위를 기록했지만 디지털 튜너까지 포함한 튜너 생산량에서 1위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객을 감동시켜라’ 세계 최초의 튜너제품이 탄생하는 RF 연구실. 그런데 의외로 빈자리가 많다. 박길상 RF 연구실장은 “RF 연구원 중에 매일 10~15명은 고객을 방문해 함께 문제점을 해결한다”며 “중국 선전에는 아예 고객사 근방에 사무실을 얻어 연구원들이 상주한다”고 밝혔다.

LG이노텍은 지난 2000년에 디지털 TV 튜너 사업을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일본 경쟁사와의 경쟁력에서 뒤쳐지고 기술력도 높지 않아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무기는 고객밀착형 영업이었다. 튜너 및 파워부품 사업을 맡고 있는 이견정 디스플레이네트워크 사업부장은 “고객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제품 개발보다는 고객 밀착형 영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엔지니어를 고객회사로 보내 함께 제품을 개발토록 했다”며 “이런 활동은 1년 뒤 부터 효과가 발휘했다”고 밝혔다.

LG엔시스, OLAP 솔루션 GS인증 획득

LG엔시스는 솔리데오시스템즈와 공동개발한 온라인분석처리(OLAP) 솔루션 ‘이지다스(ezDAS)’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굿소프트웨어(GS) 인증을 획득했다고 5월 30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기업 내 축적된 데이터를 의미있는 정보로 가공, 비즈니스 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차원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LG엔시스는 이 솔루션을 기반으로 서울시 및 건교부의 건축·주택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부산시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사업, 행자부의 시·도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는 성과도 거뒀다.

장윤찬 LG엔시스 솔루션사업 담당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제품의 완성도 및 품질에 대한 공신력이 강화됐다”면서 “공공 뿐만 아니라, 금융·제조·유통·통신 분야에도 영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알티전자, LDE와 휴대폰 케이스 캐시카우로 육성



알티전자 사장은 “2005년까지 한계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해 반자동 슬라이드 힌지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며 “특

히 올해에는 LED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반도체 등 LED 전문업체에 비해 후발주자인 핸디캡을 고품질 제품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알티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고 수준의 밝기인 2,0칸델라급 사이드 뷰(Side View)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했으며, 이달 양산에 들어간다. 독자적인 패키지 설계로 개발된 이번 LED는 일본 니치아, 서울반도체 등 국내외 경쟁사보다 25% 이상 높은 휘도를 자랑한다. 알티전자는 이 제품과 함께 40인치 이상 LCD TV에 채용되는 파워 LED도 개발중이다.

휴대폰 케이스 사업의 경우,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을 결합시킨 신소재 개발을 통해 조만간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납품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알티전자의 주력 사업은 지난해 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반자동 슬라이드 힌지, LED, 휴대폰 케이스 등 3대 축이 될 전망이다.

앞서 알티전자는 지난해 5월부터 삼성전자의 히트모델인 D900, E900 단말기에 슬라이드 힌지를 공급해 오고 있다.

인터엠, IP기반 디지털 음향기기 양산

음향, 영상 및 통신기기 전문기업인 인터엠은 2년동안의 투자를 걸쳐 IP기반 디지털 음향기기를 개발, 양산에 들어간다고 5월 30일 밝혔다. 인터엠은 이전 아날로그 방송음향기기는 설치공사가 힘들고, 기기 사용이 까다로웠지만 이번 디지털 음향기기 개발로 인터넷망만 있으면 설치가 보다 간편해져 공사시간과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터엠이 출시 예정인 IPC(Inter-M Public address Convergence) 시스템은 15인치 터치스크린과 임베디드 윈도 XP기반 메인 컨트롤러 시스템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테고리 5 전송선로를 이용, 다수의 앰프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노이즈 및 외부 간섭에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조순구 인터엠 사장은 “이번에 개발한 IPC 시스템은 유럽과 중동지역 수출의 새로운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변화란 트렌드에 맞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개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대중방송음향기기 부문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S전선, 차세대 리더계층 MBA로 업그레이드



LS전선이 과장, 대리급 엔지니어들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영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기획력을 강화하여 차세대 사업가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최근 산학연구원과 공동으로 미니 MBA 과정을 사내에 개설했다.

이번 MBA과정은 총 12주 과정으로 연 2회 실시되며, 교육대상은 사업부장의 추천을 받은 과장, 대리급 엔지니어 중 차수별로 20명을 우선 선발하여 운영한다.

특히 이 과정은 전통적 경영이론을 지양하고 변화와 미래, 경영혁신, 전략적 사고, 리더십 등 현대 Business issue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9명의 전문 교수진이 전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3회에 걸친 철저한 평가제도 때문에 정식 MBA과정 못지않은 자기학습이 필요하다.

한편 LS전선은 미래 사업성장을 주도할 젊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 6개월에서 2년 과정의 국내외 MBA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국내 MBA와 미국 뉴햄프셔대학, 핀란드 헬싱키대학 등과 연계한 해외 MBA등을 통해 매년 30여명의 MBA를 배출하고 있다.

TI, 래리 탄 아시아지역 신임 사장 임명



TI코리아는 4월 30일, 아시아 지역을 담당할 새로운 사장으로 래리 탄(Larry Tan)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래리 탄 사장은 앞으로 TI의 아시아 지역 최고경영자로서 아시아 지역 내 3개 생산 시설과 1개의 R&D 센터, 2개의 무선지원 센터, 6개의 현장 애플리케이션 기술센터, 19개 판매 및 마케팅 사무소를 관리하게 된다.

탄 사장은 28년간 TI의 제조, 마케팅 및 판매 분야에 경력을 쌓아온 TI 전문가다. 특히 지난 14년 간은 TI의 아시아 지역 판매 및 마케팅 조직을 관리했으며, 이 기간 동안 TI 아시아 지역 매출이 10배 이상 성장하는데 일조해 온 인물이다.

TI의 사장 겸 CEO인 리차드 팀플턴은 “탄은 검증된 지도자로,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객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공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997년부터 TI에서 10년간 근무한 테리 쳉의 뒤를 잇게 되는 래리 탄 신임 사장은 앞으로 2개월 간의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테리 쳉은 10년 동안 TI의 매출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는 중국 내 2개의 최종장비(end-equipment) 설계 합작센터를 설립했으며, 중국의 주요 전자업체와 협력을 맺기도 했다.

세우테크, RFID 라벨 지원 프린터 국산화



세우테크는 5월 25일 물류·유통 분야 신기술로 각광받는 보급형 900MHz 대역 RFID 라벨 프린터 ‘WUT-246R’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RFID와 프린터 기술력을 결합한 이 제품은 그동안 소수 라벨 프린터 전문업체에서 생산해 왔으며 국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세우테크는 이 제품 출시에 따른 인증 절차를 끝냈으며 6월에 양산을 시작한다.

보급형 모델인 WUT-246R는 EPC 클래스 0·0+·1, ISO18000-6B·젠(Gen) 2 표준을 지원하며 RFID 라벨을 인쇄할 때 기존 외산 제품에 없는 두 번의 인증 기능을 지원해 라벨 손상 여부를 엄격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전병운 세우테크 사장은 “자체 기술로 개발된 RFID 프린터를 주력으로 연간 3200억원에 달하는 세계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세우테크는 이에 앞서 자체 기술력으로 13.56MHz 대역의 RFID 프린터 개발을 성공했으며 이번에 보급형 제품에 이어 올해 말 고급형 모델도 출시할 계획이다.

아이디에스, "디스플레이소재 전문업체"로

휴대폰 부품 전문업체 아이디에스가 ‘디스플레이소재 전문 기업’으로 거듭난다.

아이디에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경영혁신을 통해 휴대폰 부품 단일사업부로 이뤄진 기존 사업구조를 휴대폰 부품, 디스플레이소재, 완제품, 응용제품 등 4개 사업부문으로 재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아이디에스는 신성장동력이 될 디스플레이소재 사업부문에서 최근 개발한 초박형 발광다이오드(LED)용 도광판(LGP)으로 변화의 고삐를 질 계획이다.

이 제품은 기존의 금형식 제조방식과 달리 패턴 프린팅 방식이 적용돼 비용절감과 LCD 박막화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속에 다음달 양산을 앞두고 있다. 이 회사는 또 LGP를 채용한 12.1인치 초박형 백라이트유닛(BLU) 개발까지 마쳤다.

아이디에스는 LGP·BLU와 함께 관련 장비·잉크 등 소모품을 공급하며 디스플레이소재 사업부문에서만 올해 약 215억원의 매출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또 자회사인 아이지티를 통해 그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온 냉음극형광램프(CCFL)용 핵심부품인 튜브와 비드를 생산, 시장공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아이지티에 50억원을 추가 투자해 오는 7월부터 약 10톤 규모의 튜브 생산라인을 가동한다.